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디에스케이(109740)

## 기계·장비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박정연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04.02'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에스케이(109740)

디스플레이 공정용 Bonder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 기업정보(2021/12/22 기준)

|      |                       |
|------|-----------------------|
| 대표자  | 김태구, 김종원              |
| 설립일자 | 1995년 02월 03일         |
| 상장일자 | 2009년 09월 23일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 업종분류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주요제품 | FPD용 Bonding System 등 |

## 시세정보(2021/12/27 기준)

|               |             |
|---------------|-------------|
| 현재가           | 7,020원      |
| 액면가           | 500원        |
| 시가총액          | 1,897억원     |
| 발행주식수         | 27,024,910주 |
| 52주 최고가       | 11,700원     |
| 52주 최저가       | 6,020원      |
| 외국인지분율        | 0.69%       |
| 주요주주          |             |
| 시너지이노베이션 외 2인 | 40.98%      |

### ■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 제조기업

디에스케이(이하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 제조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2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이하 FPD) 및 카메라 모듈, 이차전지 산업 등 여러 분야의 FA(공장자동화)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20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약 320.9억 원이며, 이 중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매출액이 244.8억 원(76.28%)으로 동사의 주요 매출을 차지한다.

### ■ 기존 LCD가 OLED로 대체됨에 따라 OLED 관련 장비 수요증가 기대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중국의 대규모 양산에 따른 LCD 패널 공급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이 LCD에서 OLED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또한, 향후 IT 제품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가 기존 LCD에서 OLED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되어 OLED 장비 시장은 대체적으로 호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는 디스플레이 수요 및 장비 교체주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핵심기술 기반 신제품 개발, 고객 발굴 등 사업영역 다각화

동사는 디스플레이 Bonder 개발 및 제품화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Linear System, Auto Probe System 및 고정밀 Probe Block, Laser System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해왔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핵심장비와 카메라 모듈 핵심장비인 Mobile용 Active Align Machine을 상용화하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기준)

| 구분   | 매출액 (억 원) | 증감 (%) | 영업이익 (억 원) | 이익률 (%) | 순이익 (억 원) | 이익률 (%) | ROE (%) | ROA (%) | 부채비율 (%) | EPS (원) | BPS (원) | PER (배) | PBR (배) |
|------|-----------|--------|------------|---------|-----------|---------|---------|---------|----------|---------|---------|---------|---------|
| 2018 | 1,179.1   | 14.2   | 222.7      | 18.9    | 170.3     | 14.4    | 21.3    | 10.4    | 54.2     | 966     | 5,235   | 6.8     | 1.3     |
| 2019 | 764.8     | -35.1  | 54.7       | 7.2     | 38.9      | 5.1     | 5.7     | 2.3     | 37.2     | 306     | 5,574   | 29.8    | 1.6     |
| 2020 | 325.9     | -57.4  | -140.9     | -43.3   | -187.6    | -57.6   | -14.5   | -11.2   | 53.8     | -746    | 4,810   | N/A     | 1.3     |

# I. 기업현황

##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 제조기업

동사는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카메라 모듈, 이차전지 산업 등 여러 분야의 FA(공장자동화)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신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BIO부문에 바이오/제약 관련사업을 추가하고, 2020년 생활건강부문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 제조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2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FPD 및 카메라 모듈, 이차전지 산업 등 여러 분야의 FA(공장자동화)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동사는 2000년 11월 핵심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에 성공하고, 대만 PVI에 첫수출(TFT-LCD 자동설비)하여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 4월 디에스케이로 기업명을 변경하고, 2009년 9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한편, 동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 연구소 및 고객사의 공정 사양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생산라인(제1공장, 제2공장)을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 금융(2021.12.22)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시너지이노베이션(23.78%)이며, 그 외 주요주주는 대표이사 김태구(9.21%), 시너지바이오조합(8.00%)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알티하이텍(기타 광학기기 제조) 및 매니지먼트엔플랜(경영컨설팅)이 있으며, 동사가 69.19% 지분을 보유한 프로투스(의약, 제약, 바이오)가 있다.

### ■ 주 사업영역 관련 핵심기술 및 주요제품

동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FA(공장자동화)부문, BIO(바이오/제약)부문 및 생활건강(마스크)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핵심사업에 해당하는 FA부문은 세부적으로 시스템 사업부(Bonding System), 리니어 사업부(Linear System), 프로브 사업부(Probe Unit)로 각각 구성된다. FA부문의 주요제품은 디스플레이 모듈공정의 필수장비인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으로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제품인 FPD용 Bonding System은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칩이 내장된 필름이나 PCB 등을 부착하는 장비로, 정밀한 Align, 일정한 압력과 온도를 통해 Bonding 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PCB Bonder, TAB Bonder 등이 있다.

[그림 1] 동사 주요제품

PCB Bonder



TAB Bonder



\*출처: 동사 홈페이지

동사는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Linear System, Mobile Camera용 Active Align System, Auto Probe System 및 고정밀 Probe Block, Laser System 등의 다양한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신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BIO부문에 바이오/제약 관련사업을 추가하고 보틀리눔 특신을 이용한 코스메틱 제품 및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프로톡스를 타법인 출자를 통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프로톡스는 기존 보틀리눔 특신 제품군의 효능 및 성능을 능가하는 제품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 보틀리눔 특신 제품군의 특성인 확산성을 개선한 저확산성 보틀리눔 독소 제품(이하 프로톡신)을 실험실적으로 생산하였다. 프로톡신은 코스메틱용 제품뿐만 아니라 보틀리눔 독소의 확산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인 기존의 전문치료분야에 다각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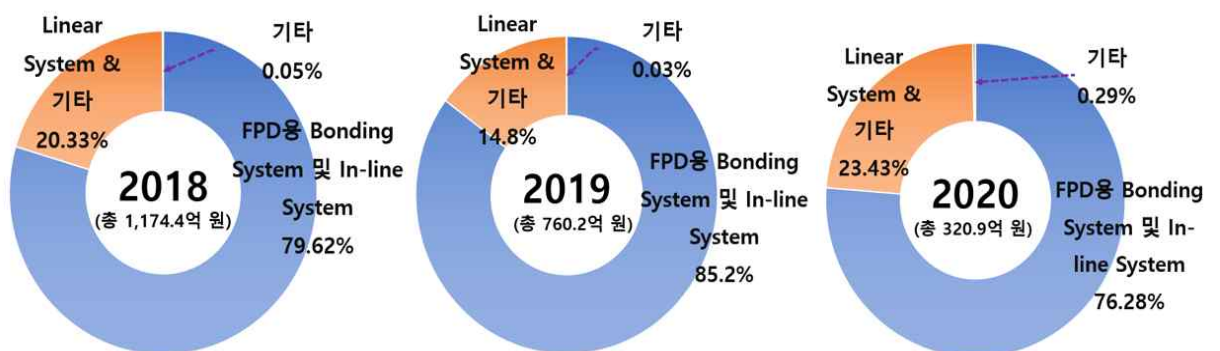
최근 동사는 중국발 황사,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환경변화와 바이러스 차단에 의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부터 생활건강부문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주요제품인 보건용마스크와 음이온 LED기능성 화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보건용마스크의 경우, 걸감, 지지체, MB필터, 안감 총 4중 구조필터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높였으며, 식약처 KF94 인증과 미국 FDA 승인을 받아 품질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동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여 보건용마스크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 매출실적 현황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따르면, 동사의 매출은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244.8억 원(76.28%), Linear System & 기타 75.2억 원(23.43%), 기타 0.9억 원(0.2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사의 제품이 속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은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코로나19,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정책, 폴더블폰 판매부진 등의 이슈사항으로 인해 전방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되면서 동사는 최근 3년간 2018년 1,174.4억 원, 2019년 760.2억 원, 2020년 320.9억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다(별도재무제표 기준).

[그림 2] 동사의 3개년 매출액 추이(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카메라 모듈 등의 전방산업 투자가 재개됨에 따라, 동사는 LG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계약을 2021년 1월(52.6억 원, 20.5억 원), LG 전자와 카메라 모듈 장비 공급계약을 2021년 4월(21.4억 원, 24.1억 원) 체결하는 등 국내외 신규 및 추가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로 인해, 동사는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 430.7억 원을 기록하며 2020년 전체 매출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한편,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430.7억 원) 기준, 동사의 내수 비중은 62.5%(269.4억 원)로 동사의 매출은 대부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현재까지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는 주력사업은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이며,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토탈 인라인(in-lin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사는 지능제어 기술, 비전 시스템 자동 보정 기술, 장비 설계기술 등 다양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력제품인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을 개발하여 국산화하였다.

동사의 주력제품은 디스플레이 모듈공정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칩이 내장된 필름이나 PCB 등을 고온 및 고압을 통해 부착해 제품화하는 장비로, 부품 부착의 정확도에 따라 Tact Time 및 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동사의 제품은 서브 모터(Servo motor) & 스텝핑 모터(Stepping motor)를 이용하여 초 고정도 위치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전 시스템을 통해 부착하는 부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때, 동사는 비전 시스템 자동 보정 기술을 이용하여 비전 시스템으로 촬영된 이미지의 왜곡을 자동으로 보정하여 이미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이후, 메인 본딩 장치유닛(Main bonding tool unit)의 평탄도 및 압력을 세밀하게 조절하고, 정밀한 온도제어를 통해 부착 부품의 변형을 방지하여 제품을 부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사의 제품은 인라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디스플레이(LCD, OLED 등)의 제조시 정밀한 Align, 균일한 가열, 공정시간 단축 등을 통해 Bonding 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동사는 이와 같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고도화되는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조건 및 품질에 만족하는 제품을 설계하여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공정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3] 동사의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2004년 공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의 생산을 위한 공정기술 및 제품 성능향상을 위한 제품기술을 다수 개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알티하이텍을 인수하여 획득한 레이저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이방성도전필름 (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이하 ACF) Bonding 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동사의 ACF Bonding 장치는 ACF를 레이저빔으로 가열하고, 회로기판을 가압하여 패널과 회로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레이저를 이용한 Bonding 장치이다. 한편, 동사는 보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ACF 접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접착방법’, ‘오토 프로브 검사 장치’, ‘패널 검사장치’, ‘소수평형 피씨비 본딩 장치’ 등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

## ■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했던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분야의 제품군 확보

최근 배출가스 저감 등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 등이 활발하게 연구 및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동사도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산업에 진입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핵심장비를 개발하여 2020년 4월 ‘이송롤러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이차전지용 라미네이팅 장치’, ‘이차전지용 고속 커팅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동사는 특허출원 이후에 이차전지 제조장비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고객사와 제품검증을 진행하여 2021년 8월 고객사에 첫 제품을 납품하였다.

또한, 동사는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안면인식 및 AR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비전 인식기술과 자동보정(Active-Align) 기술을 개발하여 카메라 모듈 핵심장비인 Mobile용 Active Align Machine을 상용화하였다.

## ■ 점차 축소되는 LCD와 이를 대체하며 증가하고 있는 OLED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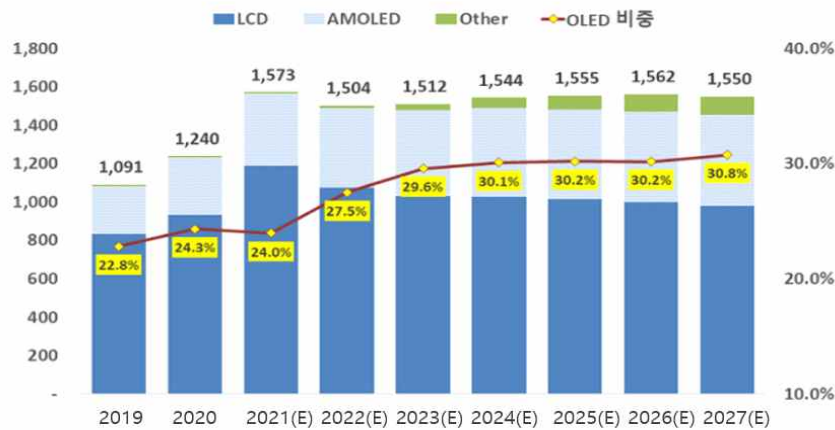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주력으로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동사의 매출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산업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망산업인 디스플레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망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MDIA(2021)에 따르면, LCD, OLED 및 기타 디스플레이(Micro LED 등)를 포함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2019년 1,091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에 의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LCD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2021년 1,57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1년 7월 이후 LCD 패널 수요 급증이 완화되면서,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하여 2022년에는 1,504억 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디스플레이 수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2027년에는 1,55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스플레이 시장은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LCD가 세계 경기둔화와 중국의 대규모 양산에 따른 LCD 패널 공급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어 소형 및 대형 패널을 독식했던 LCD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OLED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이 기존 65인치 이상 TV가 LCD에서 OLED로 전환되고 있고, 애플이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 전 모델에 OLED 패널을 탑재하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림 4]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OMDIA, KDIA(2021),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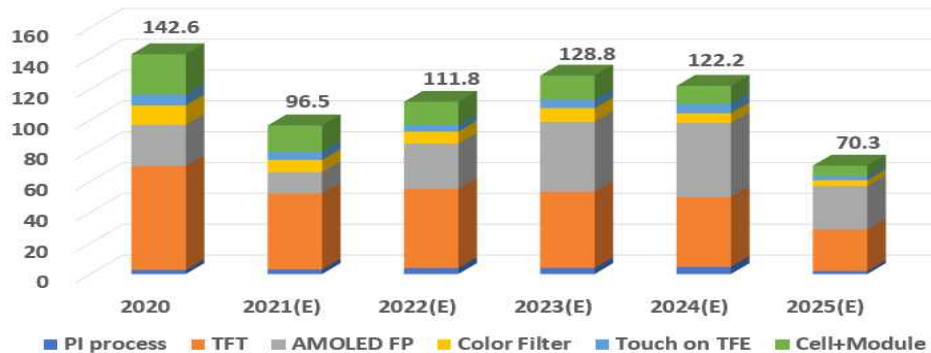
■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의 수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은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전방산업 최종제품의 고품질화·고정밀화 추세에 맞춘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교체/신규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대비 전력 효율성, 밝기, 색재현력 등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하고, 유연소재 적용이 가능해 폼팩터 변화가 자유로운 OL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부상하고 있으며, IT 제품 제조사들도 LCD를 대체하여 OLED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은 LCD 신규투자를 축소하고, 기존 LCD 생산라인을 OLED 생산라인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폴더블, 롤러블 등 플렉시블 OLED 생산라인에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2020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가 성장한 바 있다.

[그림 5]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InformaTech, KDIA(2021), NICE디앤비 재구성

InformaTech(2021) 자료에 따르면,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국내 및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기업들의 지속적인 중소형 플렉시블 OLED 장비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LCD 장비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2020년 142.6억 달러에서 2021년 96.5억 달러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9년 및 2020년에 증설된 OLED 생산라인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한 교체주기를 감안하면 2022년 111.8억 달러, 2023년 128.8억 달러의 규모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소형 패널에는 대부분 OLED가 LCD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어 OLED 장비 시장은 대체적으로 호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는 장비 교체주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기술 중요도가 높고, 자본 집약적인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주요 Key player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은 디스플레이의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응용분야의 확대로 공정장비 제어의 정확도, 고속검사, 미세패턴 형성 등 기존대비 향상된 성능 및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기술 중요도가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이고, 높은 초기 개발비용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또한,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공정기술에 부합하는 장비 제작을 위해 협력관계가 필수적이고, 제품 신뢰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은 성능이 검증된 기존 거래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은 디스플레이 장비관련 기반 기술력을 갖춘 Canon Tokki(일본), AMAT(미국), Nikon(일본), 국내 원익IPS, 에이치엔이루자, 인베니아 등의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 규제보다는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경쟁사

동사의 주력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국가 R&D 과제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동사의 영업활동에 정책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주력제품은 디스플레이 모듈공정에 사용되는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이며, 국내 경쟁기업으로는 제이스텍, 파인텍, 에스에이티이엔지 등이 있다.



[표 1] 국내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기업

| 기업명      | 주요제품  | 개발내용  | 2020년 매출액  |
|----------|---|---|------------|
| 제이스텍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B Bonder를 개발함.</li> <li>- Source부 TAB-IC에 ACF를 사용하는 In-Line System으로 최대 1,355*770mm, 최소 713*411mm 크기의 패널 제조공정에 사용 가능</li> </ul>      | 1,144.5억 원 |
| 파인텍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G/COF/COP Bonding을 개발함.</li> <li>-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로 압착면 활성화 및 유기물 제거 후 ACF를 이용하여 패널의 전극과 Chip 또는 TAB의 전극을 압착</li> </ul>                  | 812.5억 원   |
| 에스에이티이엔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B Bonding System을 개발함.</li> <li>- TFT LCD MODULE 공정에서 LCD 패널의 TAB 단자부와 PCB 단자부의 상하위치를 맞추고 압착 Tool을 이용하여 일정 압력과 온도를 가하여 접합</li> </ul> | 362억 원     |

\*출처: 각 기업의 홈페이지(2021) 및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6]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 규제에 의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분류된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외부의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방전되었을 때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등의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동사는 이차전지 핵심장비를 개발하여 2021년 8월 LG에너지솔루션과 단일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동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는 등 근무환경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직원 중심’의 사내 문화를 갖추고 있다. 동사는 성과 관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 실적과 수행 과정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목표 관리 결과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 및 연봉 조정 등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자질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의 실무 적용을 극대화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효율적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사원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족구장·당구대·탁구대 등) 구비와 장거리 거주자들을 위한 아파트 기숙사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대출제도를 통한 주택자금 지원, 사내 친목을 위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원 표창, 스톡옵션 제도운영, 야유회 및 송년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약 8.7%으로 동사가 속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의 여성 고용비율 평균인 13.9%(2020년도 산업별 여성고용비율, 고용노동부)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사는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약 50.9%로 산업평균인 73.4%를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다만, 동사는 비정규 직원 비율이 0.2%로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표 2] 동사 근로자의 정규직 수 및 근속연수

| 성별 | 직원수(명) |         |     | 평균근속연수(년) |      |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      |
|----|--------|---------|-----|-----------|------|------------------|------|
|    | 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 합계  | 동사        | 동 산업 | 동사               | 동 산업 |
| 남  | 116    | -       | 116 | 5.9       | 6.9  | 38               | 47   |
| 여  | 10     | 1       | 11  | 2.6       | 6.0  | 19               | 33   |
| 합계 | 126    | 1       | 127 | -         | -    |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 1명, 비상근감사 1명 총 2명의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경영기획실)이 구성되어 있으며, 부장 1명, 차장 1명, 대리 1명, 주임 2명, 사원1명 총 6명의 직원이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최대주주는 시너지이노베이션이며 23.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의 의무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동사는 배당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주주친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II. 재무분석

### 2019년과 2020년 매출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실적 반등에 성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방 고객사의 시설 투자 감소 등으로 동사의 최근 2개년 매출외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3/4분기 고객사 설비 투자 일부 회복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2020년 총매출액을 상회하며 외형 반등에 성공하였다.

#### ■ FPD용 Bonding System 제품의 내수 부문이 매년 동사 매출 견인

동사는 FA기반 고성능 FPD용 Bonding System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으로, 약 27년의 사업 기간 동안 FPD 및 태양전지, 이차전지 산업 등 여러 분야의 FA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제조 부문(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Linear System & 기타), 기타 부문(임대수익 외)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0년 기준 부문별 매출 비중은 제조 부문이 99.71%, 기타 부문이 0.29%를 차지하였고, 내수 및 중국 등지로의 수출 비중은 각각 66.4%, 33.6%를 차지하여 제조 부문의 내수 판매가 매년 동사 매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 2020년 전방 고객사의 발주량 감소로 매출 실적은 전년에 이어 하락세 지속

엘지디스플레이, 삼성전자, BOE, IRICO 등의 국내외 Display Maker 및 Set-Maker(TV, Monitor 등 생산)를 전방산업 및 고객사로 두는 가운데, 2018년 1,179.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중국기업의 LCD패널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전방산업 수요부진 등으로 764.8억 원의 매출액(-35.1%, YoY)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방산업 신규 시설투자 감소 등으로 325.9억 원(-57.4%, YoY)을 기록하는 등 최근 2개년간 큰 폭의 매출외형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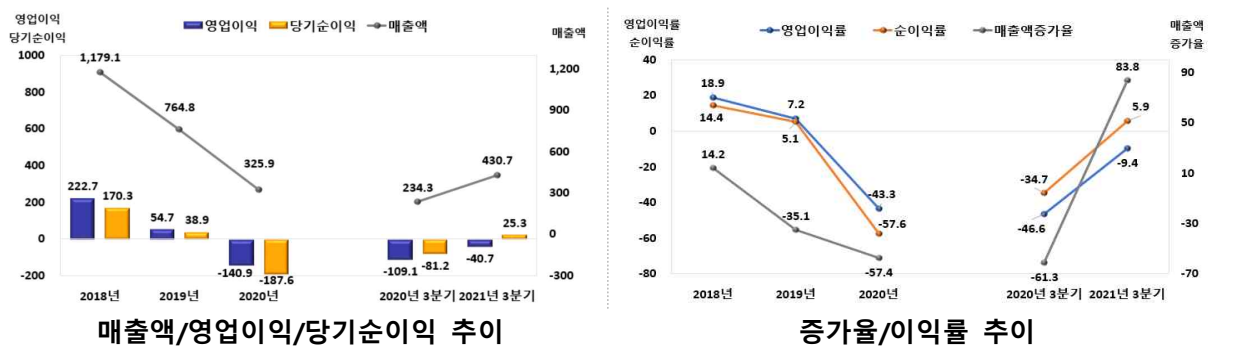
다만, 2021년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8% 증가한 430.7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하락세가 일단락되고 일부 회복을 보였다. 이는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카메라 모듈 제조 장비 공급 등 주요 국내외 고객사로부터의 수주량 회복 등에 기인한다.

#### ■ 큰 폭의 매출 감소로 최근 2개년간 수익성 악화, 2021년 3분기 순손익 흑자 전환

동사는 고객사 맞춤 제품 개발, 핸들링(Handling) 등을 위한 지속적인 R&D 활동을 수행하여 총 영업비용 중 인건비성 비용인 종업원 급여, 외주가공비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2개년간 큰 폭의 외형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출원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2018년 74.8%→2020년 92.4%)하면서 수익성 역시 크게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에는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가운데, 이차전지 등 신규사업 개발에 따른 급여, 감가상각비 등 과중한 영업비용 부담이 지속되어 140.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증가 등으로 인한 영업외수지 적자 기조로 187.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열위한 수익구조를 보였다.

2021년 3/4분기 누적매출이 일부 회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비용 등 영업비용이 여전히 매출을 상회하여 분기영업손실 40.7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손익이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였다. 다만,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한 금융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분기순이익은 25.3억 원을 기록하며 순손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2021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9.4%, 매출액순이익률: 5.9%].

[그림 7]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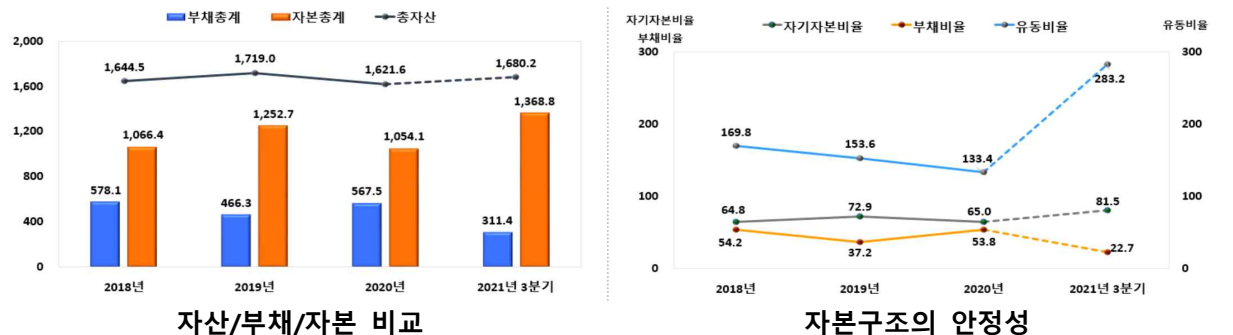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및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규모의 누적 자본량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양호한 수준 유지, 차입 부담은 외형 대비 비교적 적정한 수준**

2020년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누적된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65.0%를 차지하는 등 무난한 자본 여력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기말 부채비율이 전년 37.2%에서 53.8%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2020년 기말 차입금의존도는 23.6%(차입금 382억 원)로 비교적 적정 수준이며, 기말 현금 131.6억 원 및 담보 제공 가능한 유형자산 511.6억 원 등을 고려할 시 차입금 리스크가 높은 편은 아니고 추가적인 재무융통성 역시 일정수준 확보하고 있다.

이후, 2021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 22.7%, 자기자본비율 81.5%를 기록하는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전년 말 대비 다소 개선되어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였고, 유동비율은 283.2%를 기록하여 전년 말(133.4%)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및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 항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0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
| 매출액       | 1,179.1 | 764.8   | 325.9   | 234.3     | 430.7     |
| 매출액증가율(%) | 14.2    | -35.1   | -57.4   | -61.3     | 83.8      |
| 영업이익      | 222.7   | 54.7    | -140.9  | -109.1    | -40.7     |
| 영업이익률(%)  | 18.9    | 7.2     | -43.3   | -46.6     | -9.4      |
| 순이익       | 170.3   | 38.9    | -187.6  | -81.2     | 25.3      |
| 순이익률(%)   | 14.4    | 5.1     | -57.6   | -34.7     | 5.9       |
| 부채총계      | 578.1   | 466.3   | 567.5   | 562.5     | 311.4     |
| 자본총계      | 1,066.4 | 1,252.7 | 1,054.1 | 1,157.8   | 1,368.8   |
| 총자산       | 1,644.5 | 1,719.0 | 1,621.6 | 1,720.3   | 1,680.2   |
| 유동비율(%)   | 169.8   | 153.6   | 133.4   | 152.1     | 283.2     |
| 부채비율(%)   | 54.2    | 37.2    | 53.8    | 48.6      | 22.7      |
| 자기자본비율(%) | 64.8    | 72.9    | 65.0    | 67.3      | 81.5      |
| 영업현금흐름    | 109.3   | -52.2   | 60.3    | 59.7      | -5        |
| 투자현금흐름    | -181.9  | -406.0  | -234.3  | -246.7    | 23.2      |
| 재무현금흐름    | 40.9    | 92.4    | 52.2    | 51.7      | -17.6     |
| 기말 현금     | 622.5   | 258.0   | 131.6   | 123.2     | 133.1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및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기업경쟁력

### 기술 확장성을 보유한 핵심기술 보유

- 다양한 분야로 확장성을 보유한 비전인식과 자동보정 기술 확보
- 고도화되는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Linear System, Auto Probe System 및 고정밀 Probe Block, Laser System 등 제품 연구개발 수행

### 다양한 제품 생산능력 확보

- 고객사의 공정 사양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생산라인(제1공장, 제2공장)을 확보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동사의 핵심기술

-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기 위한 지능제어 기술, 비전 시스템 자동 보정 기술, 장비 설계기술 등 다양한 핵심기술을 확보
- 핵심기술 기반으로 이차전지 핵심장비, 카메라 모듈 장비 관련 연구개발 추진

### 동사의 주력제품

####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 PCB Bonder

#### TAB Bonder



## 시장경쟁력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성장률

| 연도       | 시장규모      | 성장률        |
|----------|-----------|------------|
| 2019년    | 1,091억 달러 | 연평균 4.5% ▲ |
| 2027년(E) | 1,550억 달러 |            |

###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 및 성장률

| 연도       | 시장규모      | 성장률         |
|----------|-----------|-------------|
| 2020년    | 142.6억 달러 | 연평균 13.2% ▼ |
| 2025년(E) | 70.3억 달러  |             |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및 특징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수요증가로 LCD 시장은 축소되고 OLED 시장은 성장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휴대성이 좋은 폴더블-롤러블 디스플레이 형태로 기술발전 트렌드가 변화
- 코로나19, 중국의 OLED 전략산업 지정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존재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 규제에 의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분류된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는 등 근무환경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직원 중심'의 사내 문화를 갖추고 있으며, 성과 관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동사는 아파트 기숙사 제공 등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원 표창 등을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음.

○ 동사는 비정규 직원 비율이 0.2%로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근감사 1명, 비상근감사 1명 총 2명의 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경영기획실)이 구성하여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동사는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배당금 등의 주주친화 활동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III.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위드 코로나에 따른 전방산업 회복세,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으로 그동안 지연된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재개가 예상되며, 신규사업부문인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 모듈 장비, 바이오, 생활건강 사업부문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동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2021년 4/4분기 실적은 개선 전망

동사는 2021년 3/4분기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및 전방산업의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재개 등으로 인한 큰 폭의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9.4%의 분기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5.9%의 분기 순이익률을 기록하며 순손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일부 수익성 개선이 있었다.

2021년 4/4분기 및 2022년에도 코로나 누(nu)번이 출현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나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치사율 하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사업 불확실성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기업들의 경우,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한 공장 가동률 증가에 따라 OLED 제조 설비 및 증설 재개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역시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그간 지연된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전반적인 4/4분기 영업환경은 밝은 편이다.

####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동사의 주력 제품인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매출액은 2020년 76.28%,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82.9%로 전체 매출액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특정 제품에 편중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장비 사업, 카메라 모듈 장비 사업, 바이오 사업, 생활건강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잇따른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반복적인 충·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차전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이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핵심장비를 상용화하여 2021년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품을 납품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안면인식 및 AR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멀티카메라 탑재 보편화로 트리플 카메라 이상 비중은 2019년 15%에서 2020년 35%, 2021년 5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카메라는 스마트폰 부품 가격의 13~15%를 차지하며 멀티카메라 탑재, 고해상도 카메라 탑재 등으로 인해 카메라 수요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평균 카메라 수는 2018년 2.4개에서 2019년 2.7개, 2020년 3.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쿼드러플, 펜타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했던 기술력을 기반으로 비전 인식기술과 자동보정(Active-Align) 기술을 개발하여 카메라 모듈 핵심장비인 Mobile용 Active Align Machine을 상용화하여 2021년 4월 LG전자에 제품을 납품한 바 있다.

아울러, 동사는 바이오 사업부문에서 자회사인 프로톡스를 통해 코스메틱용 제품뿐만 아니라 보툴리눔 독소의 확산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인 기존의 전문치료분야에 다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의약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생활건강 사업부문에서 식약처 KF94 인증 및 미국 FDA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보건용마스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이와 같이, 동사의 신규사업 부문인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 모듈 장비, 바이오, 생활건강사업부문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동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 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9]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년 12월 22일)